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에 관한 질적(CQR) 연구

이현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국문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들의 한국생활 경험의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며 다문화 가정을 이룬 여성결혼이주자 8명을 선택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CQ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3개의 범주에서 12개 영역 및 그에 따른 49개의 내용에 따라 빈도분석을 하였다.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에서 심리·정서적 경험의 어려움에서 배우자와 관계, 시댁과의 관계, 의사소통 문제, 표현의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경험의 어려움은 차별적 시선, 경제적 어려움, 다문화가정으로서 위축감, 생활·관습·문화 차이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들을 대처하는 과정으로는 자조모임, 다문화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체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여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역사회체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이주자, 합의적 질적 분석

* 주(교신)저자(이현심) 전화: 02-3470-5274; e-mail: sim7173@hanmail.net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18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1. 서론

2000년대에는 국제결혼 이주자의 증가로 이들 다문화 이주자의 수는 2008년 초에 이미 5000여만 전체 인구의 2%를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그리고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결혼이주자들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3년 9월 국내 체류외국인은 1,584,524이며(출입국·외국인정책, 2013), 결혼이주민은 2013년 1월 기준 231,520 으로 남자는 25,151명, 여자 206,369명이다(안전행정부, 2013). 이와 같은 수준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총 인구에 10%에 해당하는 500만 여명의 이주자가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경기개발연구원, 2013).

국가 간 상호 장벽 붕괴에 따른 인구이동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구통계 학적인 변화, 생산인구의 부족, 여성들의 결혼관 변화 등으로 국제결혼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결혼을 선택한 자들은 언어와 일상생활 그리고 가족관계와 새로운 사회의 적응을 위해 어려움이 많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에서처럼 완전한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 활동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Adams, 1990).

여성결혼이주자들이 한국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체류 자격에 따른 불안정, 경제적 불안정, 친구관계, 종교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 편견과 물이해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가정적으로는 자녀출산과 양육의 부담, 가족 간의 친밀감 형성 부족, 남편의 음주와 가정폭력, 이혼, 남편의 낮은 사회적 지위, 가부장적 가정문화, 시집식구와의 대립과 갈등 등이 여성결혼이주자들의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면을 안겨주고 있다(이금연, 2003). 그리고 여성결혼이주자의 상당수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집단적으로 결혼이

형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결혼자체가 목적인 중매혼의 성격으로 이윤추구에 급급한 결혼중개업체들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의 왜곡과 결혼을 부추기는 행위들로 인하여 결혼이후의 계획 등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결혼이후 한국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김민정 외, 2006).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들의 경우 생활의 여유를 포함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 보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달아기 & 채옥희, 2007). 그러나 이들의 기대는 입국 이후에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결혼이주자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나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 및 스트레스, 가정 경제의 어려움, 차별과 편견, 자녀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권구영 & 박근우, 2007).

지금까지 살아 온 문화와 환경이 다르고 받아 온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생활에서 문화적 충격과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특히 가부장적 유교적 사상과 전통적 가족관계 및 남성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주자들은 결혼생활 및 사회, 문화 적응 문제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주자에 대한 역사가 짧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때문에 여성결혼이주자들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나 대응책은 있으나 그들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그들의 경험과정과 깊은 내면의 심도 깊은 분석적 연구는 지금까지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주자들이 한국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관하여 느끼고 경험한 그대로를 자유롭게 나타내어 기술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대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합의적 질적 분석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CQR)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여성결혼이주자들의 삶

을 재조명하면서 한국생활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다양한 현상을 통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자 한다. 즉 한국이라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여성결혼이주자들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하여 의미와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줌으로 그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통하여 여성결혼이주자들의 한국생활 경험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여 효과적인 사회복지의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여 이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이끌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어우러져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1. 연구 문제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주자에 대한 행정, 교육 및 사회복지적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 경험에서 어려움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구체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1.1.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에서 심리·정서적 경험은 어떠한가?
- 1.1.2.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에서 사회·경제적 경험은 어떠한가?
- 1.1.3.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 경험의 대처과정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여성 결혼이주자의 유입

국제적인 노동 이동과 관련하여 두드러기는 점은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현상인데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뿐 만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Castle & Miller, 2003). Piper & Roces(2003)는 이주 여성화 현상에서 결혼과 노동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Constable(2005)은 저개발국 여성들이 모국보다 더 발전된 국가로 상향하여 결혼 이주하는 것으로 즉 경제·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승격혼 또는 승혼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글로벌 상향혼(Global hypergam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본격화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농촌총각의 신부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였고 매스컴도 일익을 담당했었다. 1992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수교 공동성명에 조약하면서 중국과의 교류에 물고기가 트이자 부족한 신부감을 중국 조선족과 한족에서 찾게 되었고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고자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중국 처녀들과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는 종족간의 결합이라는 수사를 내세워 민족 동질성에 호소하면서 중국 조선족과 한국 농촌 노총각 맺어주기 운동에 적극 개입하였다(홍기혜, 1999).

보건복지부 실태조사(2005) 결과에 의하면 결혼이주자의 동향이 1980년대에는 통일교를 통하여 일본여성이 주로 한국남성과 국제 결혼하였다는 것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는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국제결혼이 대부분이며 1990년대 중반이후는 필리핀, 태국, 몽골 여성의 결혼이주가 늘어나고 1990년대 말부터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 다양한 나라 여성들의 결혼이주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05).

한편, 중국이나 태국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베트남,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그 절차가 좀 더 수월한 나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쪽 나라 여성들과의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조한숙, 2009).

이와 같이 다양한 국가의 여성결혼이주자가 증가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의 남아선호 사상은 성비 불균형을 가져와 결혼적령기에 있는 총각들이 신부감을 구하기가 어려워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문화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 속한 노총각의 결혼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부족한 신부감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찾게 되었다. 또한 결혼관의 변화도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주는 이유이다.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하면서 결혼을 기피하는 독신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결혼 대상자의 조건으로 경제적인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인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속한 남성들을 배우자로 선호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남성들은 신부감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농어촌의 총각들은 40-50대를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매매혼 성격을 띤 국제결혼은 여성결혼이주자의 증가에 일몹을 담당하고 있다(임안나, 2005).

보건복지부 실태조사(2005)에 의하면 결혼이주자의 77%가 결혼을 목적으로 하여 이주하였으며, 23%는 취업 및 방문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한국남성과 결혼하였다. 또한 아는 사람 소개, 직접 만남,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한 방법이 있었다.

위와 같이 결혼이주의 배경과 특징이 다양한 경로에 의하여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국제결혼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우리사회의 인식과 결혼이주자에 대한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방화 시대에 여러 나라의 문화와 교류하고 통합하는 것은 지구촌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외국인 특히 여성결혼이주자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전의 통제와 관리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상호이해와 존중의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했다. 정부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수용하고 결혼이주자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입장을 표방하는 만큼 일반

인들의 결혼이주자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전환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2. 결혼이주자의 심리·정서적 경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위화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이에 따르는 신체적, 정서적 불편을 경험하며(Oberg, 1960), Lundstedt(1963)은 이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시도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인성부적응형태”로 규정하면서 공통적인 반응으로는 친숙한 환경으로부터 유리된 상실감,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하는 주위로부터의 거부감,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무력감 등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심리·정서적 경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주 초기 단계에서 특히 심리·정서적 적응상태가 낮으며, 계속 안정기에 이를 때까지 적응상태는 차차 좋아진다고 했다. 또한 학력이나 소득과 같은 자원과 젠더 역시 적응의 어려움과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taca & Berry, 2002). 이주자들의 적응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심리학의 이론적 틀에서 초기 연구에서는 이주자들을 오래 동안 심리적인 와해를 지닌 고위험 집단으로 간주 하였다. 왜냐하면 이주는 중요한 생활의 변화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변화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었다(James, Hunsley, Navara & Alles, 2004).

심리·정서적 적응은 정서적으로 안녕감으로 정의되며 성격, 생활의 변화, 대처 스타일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심리·정서적 적응은 개인의 유연성, 내적통제(internal locus of control), 관계의 만족감, 개입 지향적 대처 스타일(approach-oriented coping styles) 등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반면 생활변화가 잦은 것, 외로움, 스트레스, 그리고 회피적인 대처 스타일 등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준다(Ward & Rana-Deuba, 2001).

이주자들은 이질적인 나라에서 소수 신분(minority status)으로 인종적·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은 전혀 다른 외국인으로 보이게 되고 그 사회에서 새로운 소수 민족으로 그들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것이 심리·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 소외감, 심인성 증상, 정체성 혼란과 같은 행동을 수반하는데 그 결과 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통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개인에게는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전우택, 2000). 또한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상실의 경험을 하며, 갑작스럽고 과도한 변화와 자신의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은 개인의 적응 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심리적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 불안이나 우울, 막다른 골목에 달한 느낌이나 소외감, 높은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을 동반한다(구차순 2007).

한편,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는 여성결혼이주자에게 많은 혼란을 준다. 남성중심의 가정 분위기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정 내의 모든 권한을 남편이 행사하며, 시부모와 시댁식구들에게는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서구문명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와 함께 다소 열등의식이 깔린 불신을 보이는 반면에 제 3세계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는 그 바탕에 자민족 중심주의와 인종주의 같은 문화심리적인 경향을 두고 있어 후진국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우월의식이 있는 것(Ha Minh Thanh, 2005)으로 이는 여성결혼이주자를 심리·정서적으로 코너에 몰고 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2.3. 결혼이주자의 사회·경제적 경험

새로운 문화의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상실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평가해 주는 것과 관련 되어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

격이나 신념,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측은 불확실하고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통제할 수 없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Smart & Smart, 1995).

이주자들은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어디에서나 나타난다. 가깝게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언어의 장벽은 모든 사회적 지지망과 자원, 그리고 정보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 의사소통에 대한 불편은 모든 분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사회적 적응을 방해한다. 그리고 이웃과의 친밀감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구차순 2007).

한편,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한국남성은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저소득계층이어서 많은 여성결혼이주자들의 코리안 드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2005)에 의하면, 결혼이주가족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주자의 60%가 취업중인데 전문직이나 기술직이 아닌 음식점 종업원이나 주방일 등에 참여하는 여성이 52%, 공장근로자가 14%로서 대다수가 저임금을 받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성결혼이주자들의 가구별 소득을 보면 100~199만원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0~299만원이 31.2%였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도 9.8%나 되어 10가구 중 1가구는 가구소득이 적어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08).

3. 연구방법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이주자들의 한국생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드러내어 이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인간의 복잡한 삶과 체험에 얽혀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여성결혼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서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실제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여성결혼이주자들의 일상생활세계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경험의 본질적 모습과 일상적인 생활 표현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객관성 결여를 보완시킨 질적 연구의 CQR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절차를 따라 연구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는 경험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심층 깊이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사료되었다.

3.2. 자료수집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초점은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있었다. 질적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으로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이주자들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그 목적이 특정 현상에 대한 서술과 해석, 통찰과 발견에 있으므로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목적으로 선정하고 유의적 표집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홍현미라 등, 2008).

본 연구 참여자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만나기 위하여 경기지역 다

문화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전 양해를 구한 후 한국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결혼이주 3년 이상 된 자를 선정하였다. 3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정한 것은 3년의 기간 동안 여성결혼이주자들은 한국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경험에 관하여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 3년 이상으로 선정하되 연령, 국적, 지역, 학력, 직업, 경제력 등을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참여자 선정에 자율성을 두었다. 심층 면접 대상자였던 여성결혼이주자 8명을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인터뷰를 쾌히 승낙하는 참여자들에게 사전 동의서에 동의를 승낙 받은 후, 먼저 기초 질문지를 작성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을 실시하는 도중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면접을 철회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면접은 2013년 10월 초순부터 2013년 11월 중순 까지 이루어졌으며, 한국생활 경험에 관한 비 구조화 된 면접 지침안을 작성하여 질문과 동시에 녹취를 하였다.

3.2.1.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

〈Table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	나이	출신 국가	학력	배우자 연령	결혼 기간	자녀 수	본인 직업	배우자 직업
1	28	몽 골	대졸	47	3	1	무	회사원
2	33	필리핀	중졸	44	4	2	무	집수리 공
3	29	중 국	고졸	49	6	2	무	전기기사
4	31	베트남	중졸	44	6	0	식당일	회사원
5	26	베트남	고졸	46	3	1	무	택시기사
6	29	중 국	고졸	42	5	2	식당일	회사원
7	28	태 국	고졸	39	6	2	무	일용직
8	31	필리핀	중졸	43	7	2	상업	상업

3.3. 자료분석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CQR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CQR은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과 Ellior(1989)의 집중적 과정분석을 결합하여 만든 질적 분석 방법이다. CQR은 기존의 질적 연구 방법의 객관성 결여와 결과의 반복성, 엄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여 개방한 것으로 복수의 연구자(분석 팀)가 참여하여 합의를 도달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한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복수의 연구자(분석 팀)가 먼저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각 분석자들의 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합의해 나가며 자료해석의 편향된 관점을 막기 위해 감수자가 분석자들의 합의 판단을 점검하는 절차를 따른다(Hill, Thompson & Williams, 1977).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객관성 결여를 보완시킨 CQR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생활 경험을 탐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사회복지 및 상담관련 박사과정 학생 2명이 분석 팀으로 되고,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 전공 교수 1인이 감수자로 참여하였다.

3.3.1. 범주와 영역 분류

수집된 자료들의 개념적인 틀을 구성하는 작업으로 ‘유사한 주제에 대한 정보자료군(information cluster)’인 영역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분석팀은 각 사례의 전사한 내용을 모두 읽고 영역을 만든 다음, 전원이 모여 토론을 거쳐 대범주와 중심영역을 결정하였다.

3.3.2. 영역 내의 핵심 내용 요약

모든 사례를 영역별로 정리한 후, 각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여 요약에 대한 반응을 구성하였다. 요약을 할 때 연구 참여자의 말에 충실하였으며, 사례의 전체 맥락을 염두에 두었다.

3.3.3. 영역과 핵심 내용 감수

모든 사례의 영역과 요약 반응을 구성한 후,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분석팀은 감수자의 의견에 따라 영역이나 핵심 내용을 수정하거나 토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각 영역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7~8 사례일 경우 일반적인(general) 범주, 50%이상 나타는 전형적(typical)인 범주(4~6 사례), 50%미만 나타내는 변동적(variant) 범주(2~3사례), 드물게 나타나는 드문(rare) 범주(1사례)로 분류하여 빈도를 표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 8명의 한국생활경험에서 나온 진술로부터 구성요소를 도출한 결과 3개의 범주에서 12개 영역 및 그에 따른 49개의 내용에 따라 빈도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다.

4.1. 심리·정서적 경험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는 한국생활의 심리·정서적 경험에서 배우자와 관계, 시댁과의 관계, 의사소통의 문제, 표현의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5개 영역의 내용에 대한 빈도 분석은 다음과 같다.

〈Table 2〉 심리·정서적 경험에 관한 분석

범 주	중심 영역	내 용	빈도
심리 정서적 경험	배우자와 관계	표현의 어려움 무시, 폭력행사 남편의 주벽 남편과 성격 차이 나이차이로 인한 세대차이	일반적(8) 전형적(4) 변동적(3) 일반적(7) 일반적(8)
	시댁과의 관계	언어소통의 어려움 시댁 모임에 대한 부담감 친척들의 차별과 무시 시댁식구 간섭 및 통제 자녀에게 거리를 둠	일반적(8) 전형적(6) 전형적(5) 일반적(7) 드 문(1)
	의사소통 문제	한국말 표현의 어려움 가족 존칭 구별의 어려움 오해를 받음	일반적(8) 일반적(8) 일반적(7)
	표현의 어려움	문화적 인식의 차이 제스처 사용으로 오해 한국어 표현의 다양성	일반적(8) 전형적(5) 일반적(8)
	정서적 어려움	속 대화 상대 부족으로 외로움 고민을 털어놓지 못함 대화시간의 부족	일반적(8) 일반적(8) 일반적(7)

4.1.1. 배우자와 관계

연구 참여자가 배우자 관계에서 경험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어려움(8), 무시, 폭력행사(4), 남편의 주벽(3), 남편과 성격차이(7), 나이차이로 인한 세대차이(8)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배우자의 관계에서 표현의 어려움, 성격차이, 세대 차이는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자기마음대로 되질 않으면 성질을 내고 물건을 집어 던져요. 때릴 때도 있어 요. 집에서 놀면서 이런 것도 안하고 뭐했냐고 따지면서 무서울 때가 많아요.”(사례 2)

“남편 잘 안 맞아요. 성격이 맞지 않아요. 제 말을 잘 안 들어 주어요.”(사례 1)

“일용직을 하는 남편은 술을 자주 먹고 와요. 술을 먹으면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 고.....같은 말을 계속하고 시비를 걸어요.”(사례 7)

“남편과 20살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요. 옷입는 것도 젊은 여자들이 입는 것 못 입게 해요.”(사례 3)

4.1.2. 시댁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8), 시댁 모임에 대한 부담감(6), 친척들의 차별과 무시(5), 시댁식구 간섭 및 통제(7), 자녀에게 거리를 둠(1)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시댁식구 간섭 및 통제, 시댁모임에 대한 부담감의 순이며, 드물게 자녀에게 거리를 두는 시댁도 나타났다.

“처음에는 시엄마 말을 하면 입만 쳐다봤어요. 다른 시댁식구들도 무슨 말을 하면 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알려고 입을 쳐다봤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참여자 1)

“친척들 모임이 많아요. 시댁식구들 생일, 친척들 결혼 뭐....이것저것가면 돈을 가져가야 하고 어떨 때 일도 많이 해요. 부담스러워요.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고 놀고....나는 외로워요.”(참여자 4)

“남편 여동생은 저를 무시해서 속상해요. 우리 집에 오면 냉장고도 열어보고, 옷장도 열어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간섭을 해요.” (참여자 6)

“우리 시어머니는 이상해요. 우리 아이가 자기 손자인데 시누이의 아이들은 예뻐해 주고 돈도 주는데 우리아이가 할머니 하면 리가라고 해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사례 8)

4.1.3. 의사소통 문제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생활에서 한국말 표현의 어려움(8)과 가족 존칭 구별의 어려움(8)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받는 경우(7)가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한국말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요. 서너 개는 몇 개예요. 대충해라....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음식 간 할 때 삼삼하게 하라. 아침저녁 인사가 달라요.”(사례 4)

“처음에 말이 서툴러서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가족 존칭과 존대말, 그냥 하는 말 다 달라 힘들었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뭐가 뭔지 오해도 많이 받고 많이 울었어요.”(참여자 3)

“말이 통하지 않으니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시댁식구들이 어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쳐다만 본다고 건방지다고, 못 배웠다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사례 5)

4.1.4. 표현의 어려움

의사소통에서 표현의 어려움이 나타났지만, 심리 정서적 경험에서 표현의 어려움으로 문화적 인식의 차이(8)를 느끼고, 제스처 사용으로 오해(5)를 받으면서 한국어 표현의 다양성(8)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깐 이렇게 손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하면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사례 5)

“우리나라와 많이 달라요. 어떨 때는 앉아야 하고, 어떨 때는 일어서야 하고, 말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많이 달라요.”(사례7)

“한국말은 같은 말이라도 느낌이 많이 달라요. 블랙을 시켜명다고 해요. 음식이 짜다고 하면 되는데 앞에 무슨 말을 붙여요. 하여튼 많이 달라요.”(사례 8)

4.1.5. 정서적 어려움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들의 한국생활에서 속 대화 상대 부족으로 외로움(8)을 느끼며, 고민이 있어도 털어놓지 못하고(8), 대화시간이 부족(7)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고 답답하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외로워서 많이 울었어요.”(사례 2)

“고민과 걱정거리 있어도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고... 친정이 멀고, 친한 친구도 없고, 남편에게도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어서 많이 답답해요.”(사례 5)

“대화가 거의 없어요. 신랑이 집에 오면 밥 먹고 TV 보고.... 편하게 대화는 많이 못해요.”(사례 6)

4.2. 사회·경제적 경험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는 한국생활의 사회·경제적 경험에서 차별적 시선, 경제적 어려움, 다문화가정으로서 위축감으로 나타났다. 3개 영역 내용에 대한 빈도 분석은 다음과 같다.

〈Table 3〉 사회·경제적 경험에 관한 분석

범 주	중심 영역	내 용	빈 도
사회 경제적 경험	차별적 시선	동정하는 시선 주변사람들의 무시 취업하기 어려움 주변사람들의 불신	전형적(6) 일반적(7) 일반적(7) 전형적(5)
	경제적 어려움	남편 월급이 적음 일정치 않은 수입 시댁 식구 부양 자녀양육비 부담스러움 경제적 주도권이 없음	일반적(7) 전형적(4) 전형적(5) 일반적(7) 전형적(6)
	다문화가정으로서 위축감	자신감이 저하 주위의 눈치를 보게 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열등감을 느낌	일반적(7) 전형적(6) 일반적(7) 일반적(7)
	생활·관습 문화 차이	남편위주의 생활 음식과 살림살이 어려움 명절문화 절차의 복잡함 남아선호 사상 예절문화의 어려움	일반적(7) 일반적(8) 일반적(8) 일반적(7) 일반적(8)

4.2.1. 차별적 시선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생활에서 차별시선을 경험하는 가운데 동정하는 시선(6)과 주변사람들의 무시(7), 또한 취업하기 어려움(7)을 겪으며 주변사람들의 불신(5)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남편과 싸운 그 다음날 밖에 나가면 이웃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해요. 싸운 소리를 이웃 사람들이 다 들어는 것 같아요. 나를 동정하는 것이 싫어요.”(사례 3)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싸웠는데 이웃 여자들이 우리아이와 나를 무시하고 다른 아이 편만 들어요. 속상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우리아이 말을 들어 보지도 않고 귀속 말로 무어라고 해요.”(사례 7)

“남편 월급이 적어요. 아이들 학원에 보내야 해요. 그런데 힘들어요.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광고신문 보고 찾아 갔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요. 여러 군데 다녔는데 취직이 안 되어요.”(사례 5)

“내가 일하는 곳에서 계산이 잘못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다시 계산을 하고 자기가 잘못 계산했다고 했어요. 다 행이었어요. 그때 내가 의심을 받았어요.”(사례 6)

4.2.2. 경제적 어려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 월급이 적다(7)고 하였으며, 일정치 않는 수입(4)과 시댁 식구 부양(5)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더구나 자녀들에게는 다른 집 아이들보다 잘해 주고 싶지만 양육비가 부담스러워(7) 잘해주질 못하여 속상해 하며, 또한 남편이나 시엄마에게 생활비를 필요할 때 마다 받아서 해결하므로 경제적 주도권이 없다(6)고 하였다.

“필요한 돈을 남편에게 받아쓰니까,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해 내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것 살려고 일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는데 시엄니는 별말을 하지 않는데 남편은 화를 냈어요. 아이나 잘 봐라고..그래서... 짜웠어요.” (사례 3)

“남편의 수입이 일정치 않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비오는 날에는 일을 못해요. 어떤 달에는 조금 벌고 어떤 달에는 수입이 없다고 해요.”(사례 7)

“시엄마 집에 매달 돈을 드려요. 우리들끼리 사는 것도 어렵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무슨 날 되면 용돈도 달라고 해요. 왜? 돈을 달라고 해요.”(사례 6)

“다른 아이들은 피아노학원, 태권도, 수영 다 보내는데 우리아이
는 학원 1군데 다니는데 부담스러워요.”(사례 3)

4.2.3. 다문화가정으로서 위축감

한국생활에서 다문화가정은 여러 방향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자
신감이 저하(7)되며, 주위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6) 미래에 대한 불안감
(7)과 열등감(7)을 느낀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 갔는데 다른 엄마들은 할 말 다해요.
그런데 나는 할 말을 못하겠어요. 혹시 잘못 말하면 엄마들이 나를
따돌림 할까봐.....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가정형편도 어렵고 내세
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자신감이 없어요.”(사례 3)

“자신감도 없고 주위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요. 어린이집에 엄
마들 모임에 가면 그리고 시댁식구들 모임 때도 눈치를 보면서”
(사례 7)

“남편의 수입이 적고, 나도 말을 잘 못하고 배운 것이 없고....아
이들도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잘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사례 6)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다문화 가정이니까 자신감도 없고 다
른 사람들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고.....”.(사례 2)

4.2.4. 생활·관습과 문화 차이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생활은 남편 중심으로 남편 위주의 생활(7)을 하
며, 음식과 살림살이 어려움(8)과 명절문화 절차에 대하여 복잡하고 까
다로움(8)을 겪었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 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아선호 사상(7)에 대하여 불만스러우며, 특히 한국 예절문화의 어려움(8)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모든 생활이 남편 중심으로 해요. 시댁 식구들도 남편의 말만 듣고, 남편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전부 아니라고 해요.”(사례 3)

“한국음식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양념도 이것저것이 다 달라요. 어떤 음식에는 간장 넣고, 소금, 된장, 고추장 넣는 음식이 달라요. 살림살이도 이것저것 할 것이 많고 빨래하는 방법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사례 5)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에는 차례 준비하고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돼서 많이 힘들어요. 제사 지낼 때 절차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사례 6)

“우리 아이 여자만 들이예요. 시엄마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해요. 아들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고 아들을 낳아라 해요.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집 며느리가 아니래요.”(사례 8)

“한국 예절 문화는 우리가 배워가 할 것이 많지만, 절차가 힘들고 어려워요. 편안하지 못해요.”(사례 1)

4.3. 대처과정의 경험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는 한국생활의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처하는 과정은 자조모임과 다문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역사회체계를 통하여 극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빈도분석은 다음과 같다.

〈Table 4〉 대처과정 경험에 관한 분석

범 주	중심 영역	내 용	빈 도
대처과정 경험	자조모임	모임에 대한 기대가 많음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 정서적 유대감을 가짐 조언과 정보를 공유 모국어를 마음 놓고 함	일반적(8) 전형적(6) 일반적(7) 일반적(8) 일반적(8)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대와 설렘 한국문화와 언어의 숙지 기회 함께하면 마음이 편한 해 짐 스트레스가 풀어짐	일반적(7) 일반적(8) 전형적(6) 일반적(5)
	지역사회체계	다문화 센터 이용 교회에서 도움을 받음 이웃으로부터 정보를 얻음	일반적(7) 변동적(3) 전형적(6)

4.3.1. 자조 모임

연구 참여자는 한국생활의 경험에서 자조모임은 숨길을 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모임에 대하여 기대가 많으며(8), 모임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6)가 되며,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동향인끼리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7), 조언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8), 이 모임에서는 모국어를 마음 놓고 시원스럽게 한다(8)고 하였다.

“모임이 있는 날을 기다려요. 어떤 소식을 들을까 하면서 기대를 해요.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생기고 고향음식도 먹고 수도도 떨고 좋아요.”(사례 4)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이런 자조모임에 오면 필리핀 소식도 접할 수 있어서 좋고 마음 통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사례2)

“같은 나라 출신이니까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요. 엄청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서로 좋은 정보를 가르쳐 주고 마음을 털어 놓고 말을 하니까 좋아요.”(사례 7)

4.3.2.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

연구 참여자는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생활 경험에서 미숙한 부분을 익히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기대와 설렘을 갖고 (7), 한국문화와 언어를 숙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8), 또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동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동류의식을 느끼면서 마음이 편해지고(6), 스트레스가 풀어진다(5)고 하였다.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교육 받다 보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이 많아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사례 1)

“다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국문화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꼭 많이 참석해요. 안 빠져요. 여기에 오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잘해 줘요.(사례 5)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니깐 서로 남편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시댁 식구들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느낌을 받아요.”(사례 2)

“한국에서 생활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은데 속상한 일 있을 때는 센터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이야기 하다보면 속이 후련해져요. 다른 친구들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시간도 금방가요.”(사례 3)

4.3.3.지역사회체계

연구 참여자들은 각 지역에 있는 다문화 센터 등을 이용(7)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거나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3), 이웃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때(6)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들이 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다문화센터를 이용해요.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 있고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어요.”(사례 3)

“어렵고 힘들때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 목사님께 이야기해요. 많이 도와주고 찾아오시고 그래요.”(사례 7)

“아이들 때문에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봐요. 어린이집 보낼 때도 이웃 아줌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잘 모르면 이웃집 아줌마들에게 물어봐요.”(사례 8)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들의 한국생활 어려움에 질적 연구의 CQR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을 통해 살펴보았다. 경기도 지역 다문화센터 직원의 도움과 지인의 소개로 한국에서 결혼생활 3년 이상으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본 연구에 동의한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이주자 8명을 선택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정서적 경험 중 배우자와 관계에서 표현의 어려움, 남편과 성격차이, 나이차이로 인한 세대 차이는 일반적인 경험으로, 무시·폭력 행사, 남편의 주벽은 전형적 혹은 변동적으로 나타났다. 시댁과의 관계에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 시댁식구 간섭 및 통제가 일반적으로 드러났고, 시댁모임에 대한 부담과 친척들의 차별 및 무시는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자의 자녀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 드물게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한국말 표현의 어려움, 가족 존칭 구별의 어려움,

오해를 받음은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현의 어려움에서는 문화적 인식의 차이와 한국어 표현의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제스처 사용으로 오해를 받은 것은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으로 속 대화를 할 만한 상대가 없어서 외롭고,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대화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이주자들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는데 결혼해서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배우자와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2%였고 다음은 한국생활의 적응의 부담감, 시댁 가족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이주자들의 한국생활에서 심리·정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표현의 어려움,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즉 언어 표현의 어려움이 심리·정서적 경험의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그 다음은 시댁식구 간섭 및 통제가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2012)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이주자들의 부부폭력 경험은 47.8%로 부부2쌍 중 한 쌍은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겪은 폭력의 유형은 정서적 언어폭력이 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신체적 폭력이 25.3%, 부부간에 무관심하거나 방임도 22.1%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자유로운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뺏거나 하는 인권침해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 본 연구에서도 남편의 무시 및 폭력, 주벽으로 언어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참여자들이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이주자들은 배우자에게 무시 및 폭력에 시달리는 것을 개인의 가정문제나 부부문제로 다루기보다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국의 남성들은 가부장적 제도의 틀에서 성장하여 남성우월주의 사상에 맞물려 배우자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과 여성결혼이주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부부관계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문화 가정의 여성결혼이주자들은 한국의 가족주의적 가치관 즉 개인보다 가족우선성,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 간 사회 경제적 유대 의식 등과 같은 특성이 여성결혼이주자들의 한국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순·연영란(2012)의 연구에서 이주여성들은 한국으로 시집온 뒤로 자신의 뿌리가 되는 원문화(original culture)를 뒤로 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과 언어, 관습, 생활습성, 사회적 환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게 20년 이상 생활해 온 여성결혼이주자가 낯선 땅에서 쉽게 적응하여 생활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갈등과 혼란, 불안 등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다른 문화들의 적응을 건너뛰면서 자동적으로 편안하고 윤택한 삶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경험에서 차별적 시선의 어려움으로 주변사람들의 무시, 취업하기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동정하는 시선, 주변사람들의 불신은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남편의 월급이 적고, 자녀양육비가 부담스러운 것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주도권이 없으며, 시댁식구를 부양해야 하고, 일정치 않는 수입은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으로서 위축감을 느끼면서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주위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선애(2013)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주자들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전형적)과, 언어이해 부족(전형적), 미래에 대한 불안(드문)이 힘든 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생활·관습 문화 차이에서 어려움으로는 남편위주의 생활, 음식과 살림살이 어려움, 명절문화 절차의 복잡함, 남아선호 사상, 예절문화의 어려움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2)에서 여성결혼이주자들은 경제적 어려움(22.6%), 언어 문제(17.8%), 외로움(13.7%)순으로 자녀 양육 시 어려움으로 학비마련(11.85), 학교생활 부적응(10.5%), 학습지도(9.2%)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주변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고,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힘들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에 더욱 안타까워했다. 경제적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김유경, 2009)로 나타나기도 한다. 권오희(2006)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주자들은 주로 농촌과 중소도시 하류층 남성들과 결혼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해 만홍 부담감을 가진다고 하였다.

셋째,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이주자들이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과정은 자조모임을 통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체계를 통하여 나뉘대로 대처를 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모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조언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복지체계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 하며 이들이 한국생활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지식 등을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있어서 심리·정서적,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어 예전에 사용했던 것들이 쓸모가 없게 느껴지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 판단 기준이 혼동되는 것 또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와 유교 사상이 남성 중심의 한국생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여성결혼이주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배우자 및 시부모와의 갈등,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한국사회의 사회적 편견과 인권침해,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을 대부분 겪고 있었다. 여성결혼이주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우울증, 불안감 등을 호소하면서 이혼까지 생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주자들이 심리·정서적, 사회·경제적으로 원만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인 남편과 상호 문화적, 사회적 환경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자녀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관련 기관과 단체를 통해 일반인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우호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이주자들이 한국생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한국어 능력 부족이 핵심적 요인으로 한국어 실력이 능숙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0.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별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교육과 생활서비스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실성 있게 많이 발전시켜야 한다. 여성결혼이주자들의 현재 19.4%가 취업중이며 직종은 단순노무직 종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가 대부분이므로(김유경, 2009) 정착목표를 안정된 사회정착에서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에서도 여성결혼이주자들이 취업할 때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주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비용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결혼이주자 개인의 특성 및 출신 지역을 고려하여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강화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의 어려움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한국생활에서 실제 경험했던 문제점을 현상 그대로 드러내어(lift up) 분석하였다. 이처럼 여성결혼이주자들의 한국생활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이들의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을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고, 구술답변에서 표현력이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심층깊이 까지 나타내는 것에 다소 아쉬운 점과 연구자가 표본추출에서 동의를 한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 본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이주자 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여성결혼이주자로 일반화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참고 문헌 ■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권규영, & 박근우.(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 연구* 14, 187-219.
- 권오희. (2006). 국내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경기개발연구원. (2013). 한국 이민정책의 새로운 탐색. 신조호·최석현 작성. *이슈 & 진단* 118, 1-21.
- 김민정, 유명기, 이혜경, &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유경. (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 방안. 보건복지포럼. 5.
- 보건복지부. (2005). 국제여성결혼이주자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 여성가족부. (200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이경순, & 연영란. (2012). 여성결혼이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한국건강심리학회(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3), 697-709.
- 이금연. (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 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189-219.
- 이선애. (2013).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낼 때 중소도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겪는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임안나. (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인류학석사학위 논문.
- 전우택. (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출판사.
- 조한숙. (2009).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정체감 연구: 어머니 양육행동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5), 261호, 87-10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다문화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175, 45-62..
- 홍기혜. (1999).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 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 우아영. (2008). 사회복지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 홍달아기, & 채옥희. (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Ha Minh Thanh.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ams, B. N.(1990).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3rd ed). Chicago: T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Ataca, B., & Berry, J.W.(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Castles, S., & Miller, M.(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 Y. : The Guilford Press.
- Constable, N. (2005). Introduction : Cross-Border Marriages, Gendered Mibility and Global Hypergamy, N. Constable (ed). *Cross-Border Marriages :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University of Philadelphia Press.
- Hill, C., Thompson, B. J., & Williams, E. N.(197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r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James, S., Hunsley, J., & Navara, G., Alles, M.(2004). Marital,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spects of sojourner adjustment: Expanding the field of enqui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8: 111-126.
- Lundstedt, S.(1963). An introduction to some evolving problems in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Social issues*. 14: 1-9.
- Oberg, K.(1960). Culture shock and the problem of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Practical Anthropology* 7, 170-179.
- Piper, N., & Roces, M. (2003). Introduction : Marriage and Migration in an Age

of Globalization. Piper, N., & Roces, M.,(eds), *Wife or Worker ; Asian Women and Migration*, Lanham, Md :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Ward, C., & Rana-Deub, A.(2001). Home and host culture influences of sojourner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 291-306.

안전행정부. (2013). <http://www.mospa.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http://www.immigration.go.kr/>

Received 10 February 2014; Revised 23 February 2014; Accepted 10 March 2014

A Qualitative Study on Multicultural Families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fficulties Life in Korea

Hyun Sim Lee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Venture University Samsung-dong
Gangnam-gu, Seoul, 37-18, Republic of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the multicultural families female marriage immigrants experience life in Korea to evaluate the difficulty. To this end, a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Gyeonggi Province accomplished female marriage immigrants choose eight people to consensual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qualitative analysis methods(CQR) were analyzed using.

The findings in the three categories and therefore the region of 49 to 12 depending on the frequency analysis. Female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Korea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experienced in the relationship with your spouse, in-laws and relations, communication problems, difficulties in expressing emotional difficulties, respectively. Social and economic difficulties experienced discriminatory gaze, economic hardship, as a multicultural families become psychological atrophy, life, customs, and cultural differences, respectively. The process of coping with these experiences self-help meetings, participate in cultural programs, and community systems were used.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multicultural families immigrant women to help overcome difficulties in the practical help and social services to the community through the ongoing support system was required to suggestions.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Female Marriage Immigrants, Consensual Qualitative Analysis



Hyun Sim Lee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the Seoul Venture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and the elderly psychological counseling. Addres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Venture University, Samsung-dong, Gannam-gu 37-18, South Korea. e-mail) sim7173@hanmail.net, phone)82-2-3470-5274